3중 스카우트

(요13:21~30)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3중 스카우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요즘 특별히 스카우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눈에 띕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팀에 소속되어 열심히 선수생활 하고 있는 20세 약관의 손 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키 188에 몸무게 78의 아주 축구선수로서 빼어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고 함부르크의 공격수로서 이번 시즌 골을 아마 10번 가까이 넣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함부르크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스무살의 선수를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들 중 상위권에 속하는 팀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

니다.
그래서 토튼햄이라든지 첼시라든지 하는 굴지의 축구클럽들이 손 흥민 선수에게 눈독을 들이며 그 활약상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박 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의 1등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손 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손 흥민 선수로서는 커다란 영광이겠지요.

그런데 맨유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박 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로 데려가서 거기서 잘 뛰다가,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속닥거려가지고선 맨유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네덜란드의 축구팀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박 지성 선수를 맨유에 데려다 놓고서는 사실은 완전한 주전으로 쓰지를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써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선 버려가지고, 지금 1부 리그에 속해는 있지만 최하위권인 퀸즈파크레인저스인가 하는 팀에 가서 박 지성 선수의 연봉이 완전히 헐값이 돼버렸습니다.
그 퍼거슨 감독이라는 늙은 여우의 손짓에 너무 쉽게 반응하지 말라는 한 전문가의 염려스러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스카우트라는 게 치열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본문에 이 스카우트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참 기기묘묘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카우트는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것 같아요.
연쇄적으로 3중으로 스카우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스카우트하십니다.
근데 그 열두 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스카우트를 받는 동시에 자기가 예수님을 스카우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스카우트해서 퍼거슨이 박 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적당히 써먹고는 완전 헐값이 되도록 해서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유다, 이렇게 팔기 직전에 사탄에게 스카우트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3중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3중으로 일어난 스카우트의 전모를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스카우트하십니다.
이렇게 스카우트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박 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앞세워서 골을 넣게 하려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스카우트했고, 제자들은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나 하면, 열두 제자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께 얹혀져 버린 거예요.
즉, 예수님의 행로에 따라서,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방에 따라서 이 제자들의 여생의 내용이 좌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져 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 제자들 마음속에 기대가 생겨난 것이지요.
'아, 이분이 우리를 스카우트했는데 우리가 이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분이 임금이 되셔서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대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모든 이방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뚝 서게 되는 메시아왕국을 이루시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출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기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의존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의존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한 목적을 위해 써먹으려고 스카우트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따르던 이 제자들 속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 핑크빛 미래에 대한 전망은 십자가에서 좌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스카우트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카우트당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자의적으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독립국가로의 번영을 꿈꾸고, 번영한 독립국가에서의 출세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카우트하신 이유는 독립은 맞습니다, 해방은 맞아요, 그러나 유대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었고, 이들을 스카우트하신 이유는 이들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셔서 이 지상에서의 선민의 나라의 번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카우트하신 제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시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있는 천국까지 끌고 가시려고 스카우트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십자가가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게 될 때 결정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바로 빛의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상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시던 예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 수행해나가실 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들의 지상에서의 삶이 몰수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지상에서의 자기의 삶,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꿈꾸며 자기가 소원하고 주도해나가는 그런 지상에서의 삶이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몰수돼버리고 제자들의 기업, 제자들의 분깃, 제자들의 목숨이 지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으로 주어져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쉐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로 빼돌려서 지상으로부터 독립하게 하시고, 지상에서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몰수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장소로 삼으시려고 제자들을 스카우트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택하십니다, 가룟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룟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룟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을까요?

가룟유다가 열심당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룟유다 말고도 열심당원이 시므온이라고 있었지만, 가룟유다가 돈궤를 맡고 있었고 특별히 강한 자기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와 사회경제적인 암울한 상황을 불만과 불안과 염려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유다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를 전복시켜야지!'

다른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가룟유다는 이 상황을 자기가 극복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야지!'

돈을 좋아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엘리트 의식을 부러워했고 그런 기득권층으로 진출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목적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카우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 스카우트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대조차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 의해서 점화된 것이 그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예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걸 이루겠다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스카우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세운 겁니다.
마치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박 지성을 데려다가 앞세워서 시즌마다 골을 많이 넣어 잘 써먹다가, 나이가 서른 서넛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박 지성 선수를 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예수님을 앞세운 겁니다, 감독의 위치에서.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행을 결정하시고, 자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자,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퍼거슨이 박 지성 선수를 헐값으로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헐값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자기 목적의식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세워서 예수님을 스카우트해서 고용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은 자꾸 드러내서 말씀하시며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끝까지 자기 목적의식을 굽히지 않는 가룟유다를, 사탄이 마치 지금 퍼거슨 감독이 잘하고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20세 손 흥민 선수에 눈독을 들이고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굳건한 가룟유다를 눈독을 들이고 바라보고 있다가 스카우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건네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들어간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적의식이 굳건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스카우트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꿈이 이루어져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아버지 자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자기 목적적 입장이 굳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 안에서 나라의 독립을 굳건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지구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을 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이 인간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자기 목적이 굳건하고 자기 비전이 굳건한 사람을 누가 스카우트하느냐?
마귀가 스카우트합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 바깥으로 끌어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에 가장 반대하고 가장 적대적인 마음상태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의식이 굳건하고 굳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진영을 대항하기 위해서 제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서, 마귀가 가룟유다를 스카우트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카우트한 사람들 중에 가룟유다가 섞여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다 예수님에 의해서 스카우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자들처럼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게 주어질 꿈을 뭉게구름이 일 듯 뭉게뭉게 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어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만족감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아버지께로 주님 따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기대가 단순한 버려야 될 기대, 깨져야 할 기대가 아니라, 어찌해도 깨지지 않는 목적의식으로 바뀐 상태라면 진짜 한번 기대해보세요.
사탄이 나를 스카우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로 사탄에게 스카우트 되어서 어둠의 세상으로 영입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탄이 스카우트합니까?
이 인간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내 목적이 너무나 굳건한 사람.
우리가 살다보면 이런 기대 저런 기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말대로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아이고 또 이 세상에서 뭘 기대하고 있나? 이 세상 것 좋은 것 다 모아봐야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고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등진 채로 이 세상에서 굳건한 자기 목적에 뿌리를 내린 사람, 사탄에게 스카우트될 것이고 결국은 어둠의 나라로 영입될 것입니다.

3중으로 일어난 이 스카우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 스카우트되어서, 스카우트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해 아버지께로 가고,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몰수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의 장소가 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끈질기게 굳건하게 세상 내에 자기목적적인 가룟유다가 사탄에 의해 스카우트되어서 어둠의 나라로 영입해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떡하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과 모든 목적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세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